

일본에서의 유학 생활

계명대학교

박주현

오차노미즈여자대학으로 유학이 결정되고 난 뒤 걱정이 많았습니다. 한국과 가까운 일본이지만 일본으로 여행을 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행이 아니라 유학으로 일본을 경험한다는 것이 조금 무서웠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반년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행복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수업은 일본사정연습ⅡB입니다. 이 수업에 오차대 부속 초등학교와 교류하는 활동이 있어서 신청했는데 역시나 가장 재밌었습니다. 걱정했던 것과 달리 초등학생들이 유학생을 반겨주고 우리들의 나라를 궁금해하며 많은 질문을 해주어서 기쁩니다. 자기소개를 한국어로 준비해서 한국어로 인사해준 것이 정말 귀여웠습니다. 교내를 돌아다니면서 학교 소개도 받고 점심에는 학교 급식도 같이 먹었습니다. 일본은 집에서 도시락을 챙겨 오는 줄로만 알았는데 한국과 똑같이 학교 급식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또한, 저는 심리학과이기 때문에 전문과목도 수강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주목받고 있지 않은 LGBTQ에 관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어서 좋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제가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준 튜터씨와 전문수업에서 만난 일본인 친구에게 감사드립니다.

학교 축제날에 지도교수인 이시마루 선생님이 초대해준 심리학과 동창회에서 많은 추억을 쌓았습니다. 유학생인 저를 따뜻하게 반겨준 심리학과 연구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디즈니랜드, 디즈니씨, 오사카, 후쿠오카를 여행하면서 많은 추억을 쌓았습니다. 동계휴업 때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서 후쿠오카를 여행했습니다. 도쿄와는 다른 분위기가 좋았고 무엇보다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 그동안의 일상을 공유하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남은 유학기간 동안 홋카이도, 요코하마 등 다양한 곳을 여행할 생각입니다.

혼자 외국에서 살아본 것이 정말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첫 일본의 경험이 교환유학 생활인 것에 후회 없고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무사히 유학생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유학생 담당이신 하기와라 선생님, 사쿠라이 선생님, 그리고 국제과의 모든 분들, 제가

유학생화에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지도교수인 이시마루 선생님과 심리학과 연구실 분들과 튜터인 모리타상,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을 하게 해주신 오토와칸 관리실 분들도 감사했습니다.

